

해외연수 최종보고서

- 해외연수 학교명 :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 해외연수 기 간 : 2023년 1월 23일 ~ 5월 18일

학과 : 호텔관광경영학부 (호텔경영전공)

학번 : 202011350

이름 : 박지예

2023년 1월 23일부터 5월18일까지, 대략 4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4학년 1학기 때 갈 수 있었다. 미국은 마약과 총기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물론 나도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본토에 가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 배우고 경험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교 말고는 딱히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도시는 아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라면 LA말고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맑고 더운 날씨, 야자수 아래의 선글라스를 쓴 금발외국인들이 연상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를 가서는 날씨가 꽤나 추워서 반팔을 입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갔지만, 기숙사 입주 첫날부터 패딩에 이불 두 겹을 두르고 잤다. 그때만큼 한국의 온돌시스템이 그리웠던 적은 없던 것 같다. 게다가 내가 간 년도가 현지인들도 겪어본 적 없는 이상기후라고 했다. 재밌었던 점은 로컬 사람들이 추운 날 반팔 반바지를 입고 가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자신들도 이런 이상기후는 처음인 것이었다. 기숙사는 아파트와 주택 형식의 옵션들이 있었는데, 후보 6가지를 선택하지만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은 전혀 선택한 적 없는 아파트의 기숙사로 살게 되었지만, 나는 혼자 주택 형식의 기숙사에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자 기숙사가 떨어져 외롭고 무서웠지만, 적응을 하면서부터 우리 집만큼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미국 주택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넓은 거실과 부엌, 이층의 방들까지 여자 세 명이서 넉넉하게 살았던 것 등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 학교 바로 옆에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곳에 미국 대형 마트인 “타겟” 과 “트레이더 조”가 있어 장보러 가기 편했고, “판다 익스프레스, 치폴레, 쉐켄버거, 맥도날드”등 유명한 프랜차이즈 점들과 마라탕, 스시 등 아시아 음식들도 많아서 친구와 저녁약속을 잡기도 좋았다. 전철을 타고 대략 20-30분 거리에 큰 한인마트도 있어서 한식을 잘 먹으면서 지냈다.

수업은 물론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선생님들은 원어민 선생님들이었고, 과목도 그레머, 스피킹, 라이팅 등 영어를 배우기 위해 최적화 되어있는 환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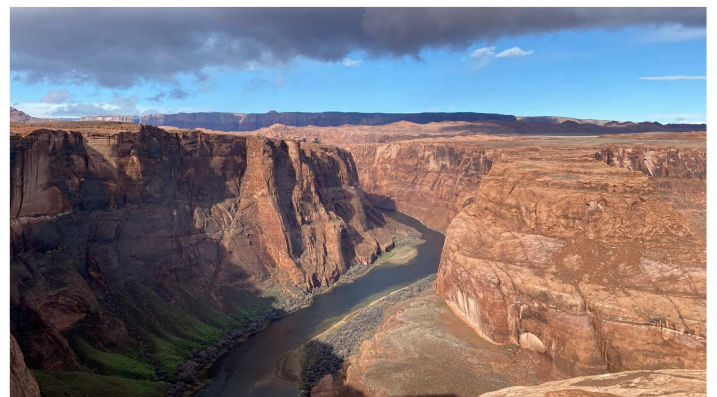
전공도 들을 수 있지만, 영어 프로그램에만 집중하고 싶어 영어수업만 들었다. 수업 스케줄도 딱딱한 편도 아니고 수업 난이도도 어렵지 않았다. 스피킹 수업의 선생님은 반 친구들이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다. 팀을 만들어서 토론도 자주하고, 주제를 정해서 ppt발표도 자주 시켰다. 라이팅 수업의 선생님은 수업의 참여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수업도중에 발표를 안했지만, 그 수업에서 만큼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그레머 수업은 영어로 문법을 가르쳐주시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안됐다. 한글로도 어려운 문법을 영어로 배운다니!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끝까지 가르쳐주시고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빠르게 적응했다. 무엇보다 이 수업은 시험을 숙제로 내줘서 제일 좋았다.

반 친구들은 각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반에서는 몽골, 일본, 중국,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한국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렇다 보니 수업 중간 한국어가 많이 들렸고, 쉬는 시간에도 한국어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반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점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토플 시험을 쳐서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 이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반 편성을 골고루 하지 못한 것 같아 이 점은 아쉽다. 수업 뿐 만 아니라 국제학생 전체에 아시아인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차이나타운이나 재팬 타운 등 아시아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어학연수를 오는 것에 놀랐다. 이 지역에 아시아인 비율이 높은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종차별을 한 번도 안 당해 본 것이다. 미국 가기 전에 인종차별에 관련한 영상들도 자주 보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그 고민이 무색하게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은 없다. 샌프란시스코가 아시아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학기 도중 봄방학을 일주일 넘게 가지는데, 이 기간은 다른 지역을 놀러가기에 정말 좋은 기간이다. 사실 모든 유학생들이 이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LA와 라스베가스는 비행기로 1시간 걸리는데, 가격도 한국에서 제주도 가는 가격과 비슷하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은 인생 첫 LA와 라스베가스 여행을 일주일간 다녀왔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이외의 처음으로 가는 다른 지역이었고, LA는 워낙 할리우드와 빌보드음악으로 유명해서 인생에 한번쯤은 꼭 가고 싶은 곳이었다. 그래서 여행 코스로 할리우드 거리, 할리우드 사인은 필수였고, 산타모니카 해변과 라라랜드의 배경이 된 그리피스천문대 등 다녀왔다. 할리우드 거리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행으로 생각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도 워낙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서 LA에서는 별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버스를 대략 6시간 정도 타고 갔는데, 한국 고속도로와 달리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가 정말 신기했다. 내 시야가 다 안 달아서 끝이 안보일 정도로 큰 땅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내가 아메리카 대륙을 왔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라스베가스는 생각보다 안전했다. 길거리에 노숙자는 한명도 못봤었고, 밤에는 관광객들이 많아 안전하게 느껴졌다. 화려한 호텔들과 카지노들은 눈을 즐겁게 했고, 날씨도 내내 좋았어서 관광지로써 최고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코스로 그랜드캐니언 투어를 다녀왔는데 아쉽게도 하이라이트인 그랜드캐니언은 이상기후로 눈이 와서 당일 폐장하였고, 결국 “홀스 슈 밴드, 엔텔로프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을 갔다. 그래도 미국 대륙의 장엄함을 느꼈고,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코스로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 무엇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성공적이었다. 학기 초 국제학생회인 "IEEC"라는 곳에 참여했다. 많은 동아리들이 있었지만, 너무 선택지가 많은 나머지 고르지 못했다. 학교 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국제학생회라는 이름에 맞게 다문화의 주제가 많았다. 우리 문화교류 부서였는데, 게임대회,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눠먹는 파티 등의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를 주관한 것도 좋았지만, 그 곳에서 정말 좋은 인연도 만났다. 그 친구들과 자주 놀았고, 덕분에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한국음식을 만들어줘서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답을 해주며 일본음식을 만들어줘서 대접해줬던 적이 있었다. 우리가 만들어줬던 음식이 너무 작게 느껴질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이외에도 우리를 배려해주는 것이 많이 느껴졌고,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곳을 오기 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 좋은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 지내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학교에 큰 규모의 좋은 시설로 되어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이 곳에서 농구, 배드민턴, 클라이밍, 헬스, 배구, 탁구, 스쿼시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이곳에서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 대한 재미를 느꼈었고, 좋은 친구도 만나 같이 운동을 했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입하는 것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지만, 운동 뿐 만 아니라 회의시설도 잘 되어있고, 매주 줌바 댄스, 킥복싱, 요가,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내의 카페나 음식점들도 정말 만족스러웠고, 그 중에서도 대학교 굿즈를 파는 곳이 제일 좋았다. 후드 티나 바람막이를 자주 구경했고, 텀블러, 인형, 볼펜, 열쇠고리, 컵 등 다양했다. 여기서 더 많이 사오지 못한 것을 후회할 정도이다. 학식도 기대이상이었다. 처음에는 워낙 한국음식에 입맛이 맞춰져 있던 터라 적응은 쉽게 못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졌고, 구성이나 영양소도 풍부했다. 전부터 워낙 미국 급식은 맛없다고 들어 와서 기대를 안했지만, 나중에는 떠나기 전에 학식을 먹으며 아쉬워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도 접해보고 싶다면 미국을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분명 처음에는 어려웠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들을 많이 받았고, 스스로를 더 발전해나가고 싶은 동기부여도 되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영어실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늘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영어사용량이 늘어났고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동안 영어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느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유학은 돈이 많이 든다.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감안하고 선택해야 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본토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경험들에 있어서는 내 인생에 가장 크고 값어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